

호날두 유럽 선수 최초 A매치 통산 100골 금자탑

스웨덴전 100호·101호 득점 포르투갈 2-0 승리 견인
‘109골’ 이란 알리 다에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기록
그린우드·포든 퇴출 잉글랜드, 덴마크와 0-0 무승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유럽 선수 최초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100골을 돌파했다.
포르투갈은 9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프렌즈 아레나에서 열린 스웨덴과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A 조별리그 3조 2차전에서 2-0으로 완승했다.
1차전에서 크로아티아에 4-1로 이긴 포르투갈은 2승(승점 6·골 득실 +5)을 챙겨 조 1위

를 유지했다.
발가락 염증으로 크로아티아전에 결장했던 호날두는 이날 멀티 골을 폭발해 포르투갈의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45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후반 27분에는 중앙 펠릭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로 차 넣으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호날두는 이날 국가대표로 나선 165번째 경

기에서 A매치 100·101호 골을 터뜨렸다.
유럽 선수 중 최초로 A매치에서 100골 금자탑을 세웠다. 전 세계에서는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109골)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A매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다에이는 A매치 149경기에서 109골을 기록했다.
스웨덴은 전반 43분 구스타브 스벤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고, 호날두의 대기록 작성을 지켜보며 승리를 내줘야 했다.
리그A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는 덴마크와 잉글랜드가 0-0 무승부를 거뒀다.
메이슨 그린우드와 필 포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으로 퇴출당하는 등 진통을 겪은 뒤 잉글랜드가 치른 첫 경기였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코너 코드, 잭 그릴리시, 켈빈 필립스, 에이슬리 메이틀랜드-나일스 등 4명의 새내기 선수에게 A매치 데뷔 기회를 주며 덴마크에 맞섰으나 무승부로 A매치 4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덴마크가 10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동안 잉글랜드는 5개 슈팅을 차는 데 그쳤다.
전반 15분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가 오른 쪽 측면에서 찬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손에 막혔고 후반 23분 해리 케인의 헤딩 슈트는 골대 위로 넘어갔다.
해리 케인이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 슈팅을 시도했으나 상대 수비수가 세로로 걷어내는 등 잉글랜드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신한동해오픈 포토콜 9일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청라GC에서 열린 제36회 신한동해오픈 포토콜에서 박상현(왼쪽부터), 김경태, 김한별, 이태희, 노승열, 장이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고·광양제철고 협회장배축구 8강

오늘 전북고창북고·경기매탄고와 4강 티켓 놓고 격돌

금호고와 광양제철고가 제41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8강에 진출했다.
금호고는 지난 8일 경주 알천2구장에서 열린 전남LIMFC와 16강에서 9-0 대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10일 오후 1시 전북고창북고와 4강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금호고는 조별리그에서 광주수영과학기술고에 4-1, 충북문호고에 5-0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전남LIMFC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에 엄지성의 멀티골(19분, 36분), 김하중(25분)의 득점에 3-0으로 승기를 잡았고 후반에도 교체 투입된 강희수(58분), 박민석(64분, 77분), 이승우(66분), 정종훈(72분)의 득점으로 9골차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대회 준우승팀인 광양제철고는 조별리그에서 울산정중수FCU18을 6-0으로, 제주중앙고를 8-2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16강전에서는 경기능곡고를 상대로 5-0 승리를 거뒀다. 광양제철고는 전반에 3골을 터트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후반에도 2골을 추가했다.
박성휘(5분, 35분)와 문승민(30분, 69분)이 각각 멀티골을 터뜨렸고 신태영(61분)도 득점메이스에 가담했다.
광양제철고도 10일 오후 1시 경기매탄고와 8강전을 갖는다.
한편, 협회장배는 격년으로 고교부와 중학부를 번갈아 개최, 올해 중학부 대회가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축구협회 주최로 전국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2년 연속 고등부 대회로 진행된다. 전국 고교 축구 강호 24개 팀이 참가했다. /최진화 기자

KLPGA투어 팬텀 클래식 영암서 열린다

올해 하반기 첫 대회 총상금 6억 규모 무관중 진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 대회가 25일 영암에서 개막하는 팬텀 클래식으로 막을 올린다.
KLPGA 투어는 “25일부터 사흘간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에서 2020 팬텀 클래식을 총상금 6억원 규모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팬텀 클래식은 8월 16일 끝난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올해 하반기 첫 대회다.
원래 이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11월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9월 말 일정이 비어 있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11월로 옮겨 KLPGA 투어의 하반기 첫 대회는 10월 8일 개막하는 제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팬텀 클래식 개최로 9월에 대회가 성사됐다.
KLPGA 투어는 “최근 20억원 예산을 추경해 대회 상금 출연과 함께 신규 스폰서 유

치에 나섰고 KLPGA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크리스에프앤씨가 KLPGA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았다”고 대회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팬텀 클래식은 2016년부터 2년간 열린 바 있고 올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진행된다.
크리스에프앤씨 우진석 회장은 “대회가 연달아 취소돼 투어 선수들과 관련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골프업계를 대표하는 한 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 팬텀, 파리게이트, 마스터바니에디션, 세인트 앤드류스 등 5개 골프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박현경, 이정은, 오지현, 김민선, 김아림 등 20여 명의 선수에게 골프 의류를 후원한다. /연합뉴스

임성재·안병훈·강성훈·김시우 PGA 투어 US오픈 출전 확정

오는 18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 US오픈 출전 선수 144명이 확정됐다.
US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PGA투어 2019-2020시즌 페덱스컵 최종 랭킹에 따라 마지막 남은 출전권 5장의 주인이 가려졌다고 9일 밝혔다.
6월에 개최하려다 코로나19 사태로 9월로 미룬 US오픈은 페덱스컵 최종 순위 45위 이내 선수 중 출전권을 따지 못한 5명에게 출전권을 주기로 한 바 있다.
페덱스컵 8위 세바스티안 무뇨스(콜롬비아), 37위 브라이언 허먼(미국), 40위 타일러 던컨(미국), 44위 마크 허버드(미국), 그리고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가 45위로 막차를 탔다.
세계랭킹 60위 이내, 최근 1년 동안 PGA투어 대회 우승자 등 세계 정상급 선수가 모두 망라된 US오픈 출전자 명단에는 임성재(22), 안병훈(29), 강성훈(33), 김시우(25) 등 한국 선수 4명 출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아버지가 뛰던 그 무대”

KBO 입성 꿈꾸는 김건형·심종원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여

김기태 전 KIA 타이거즈 감독(51)은 아들에게 “야구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거포였던 심정수(45)는 아들이 야구를 하겠다고 말하자, 배팅볼을 던져줬다.
출발은 달랐지만, 김기태 전 감독의 아들 김건형(24)과 심정수의 아들 심종원(23)은 같은 꿈을 꾸며 9일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여했다.
미국에서 야구를 배운 둘은 아버지가 활약했던 KBO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길 기대한다.
김건형은 “심종원이 먼저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야구 선수 출신이고,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공통분모가 있어서 말을 하기 편했다”고 했다.
심종원은 “내가 원래 활발하다”고 웃으며 “동생인 내가 먼저 가서 인사드렸다”고 말했다.
둘은 트라이아웃이 열리기 전부터 ‘한국 야구 스타플레이어 2세’로 주목받았지만, 다른 점이 많다.
김건형은 “아버지 덕에 어릴 때부터 야구를 접했지만, 한국에서는 야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야구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걸어진 길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길 바라셨다”고 했다.
심종원은 아버지 심정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시절, 대구에서 야구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야구부에 입단했고, 11세 때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도 야구에 전념했다.
심종원은 “아버지는 배팅볼을 던져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다. 동생도 야구를 하는데, 아버지와 나, 동생 셋은 해가 될 때부터 질 때까지 야구 얘기만 한

다”고 전했다.
김건형과 심종원은 모두 우투좌타 외야수다.
김건형은 “나는 중거리 타자로 콘택트 능력이 있다. 수비는 자신 있다”며 “팀을 위해 도루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스 대학에 재학 중인 외야수 김건형은 아마추어 야구팀 카올리츠 블랙베이스에서 우투좌타 외야수로 뛰었다. 76경기에서 40도루를 성공할 만큼 주루도 능하다.
심종원은 “(아버지처럼) 홈런 50개를 칠 수 있는 타자는 아니다. 홈런 10-15개를 치면서 수비와 주루에도 강점이 있는 선수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크리스천 대학을 올해 12월에 졸업하는 심종원은 KBO리그 스카우트로부터 ‘콘택트 능력과 강한 어깨를 갖겠다’고 평가받았다.
김건형은 트라이아웃이 끝난 뒤 “후회는 없다. 내가 어떤 선수인지 보여줄 기회가 적었고 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뽕칠 선수는 뽕한다’고 생각한 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심종원은 “타격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 주려다가 힘이 들어갔다. 아쉽다”며 “아버지 덕에 트라이아웃이 열리기 전에 이름이 알려졌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나는 엄청난 훈련량을 자신감을 얻는 스타이다. 다른 요인보다는 내적인 것에서 답을 찾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한국프로야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야구인 2세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도 새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다.
아들이 다른 길을 걸길 바랐던 김기태 전 감독도, 한국과 미국에서 아들을 야구 선수로 키운 심정수도, 21일 열리는 KBO 신인 드래프트 결과를 기다린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1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서 심정수 전 선수의 아들 심종원(오른쪽)과 김기태 전 감독의 아들 김건형이 수비 테스트를 마치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